

숨은그림찾기 <106>



찾아보세요 병아리, 음료, 셔플룩, 고추, 바늘, 열대어, 은행잎, 양관, 뚝뚝배

대통령과 우표

한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담긴 우표를 발행 하라고 지시하고 판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 체국을 방문했다.

“요즘 내 우표 잘 나갑니까?”
“인기가 없습디다.
우표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고객을 불만이 됩 니다.”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이 직접 우표 뒤에 침을 발라 붙여봤다.

“아주 잘 붙는데요?”

우체국 직원이 머뭇거리다 말했다.

“고객들은 앞면이다 침을 뱉습니다.”



지난주 정답

우리나라 지도, 열대어, 바늘, 셔플룩, 고추, 은행잎, 종이배, 송사리, 사람 옆 얼굴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 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이재(광주시 남구 백운 2동) 조인자(안도군 안도읍)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1일은 애환의 호남선 완공 94년

1월 11일은 호남인들의 애환을 싣고 달려온 호남선이 완공된 지 94년이 되는 날이다.

호남선은 대전에서 논산과 광주 송정을 거쳐 목포에 이르는 252.5km의 철도다. 1910년 1월 대전~연산 구간의 공사를 착공한 지 4년여 만인 1914년 1월11일 호남선이 완공됐다.

1890년대 경제적인 유용성 측면에서 강대국 들이 철도 부설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다. 결국 국 대한제국이 1898년 직접 호남선(경북~서울~목포) 건설에 나서면서 호남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처음부터 한국인이 추진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금 사정으로 부설권이 민간 업자에게 넘어가면서 1904년 5월 호남철도 주식회사가 설립돼 선로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수탈을 노린 일본에 일방적으로 부설권을 빼앗기면서 1914년 '눈물의 호남선' 역사가 시작됐다.

논산~호남~나주 평야의 들녘을 지나 목포항 까지 이르며 농산물과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호남선은 지난 2003년 12월 8일 마지막 단선 구간이었던 목포~임성 구간(7.3km)을 마지막으로 복선화 공사가 끝났다. 1968년 복선화 공사를 시작한 지 무려 36년 만의 일이다.

복선화 이전에는 선로가 하나인 탓에 연차·연발이 잦아 승객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서있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완행열차에 몸을 실은 소박한 서민들은 상행과 하행이 겹칠 때면 비싼 급행·특급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죄도 많은 청춘이나 비 내리는 호남선에 떠나가는 열차마다 원수와 같더란다” 1956년 가수 손인호가 불렀던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에 호남선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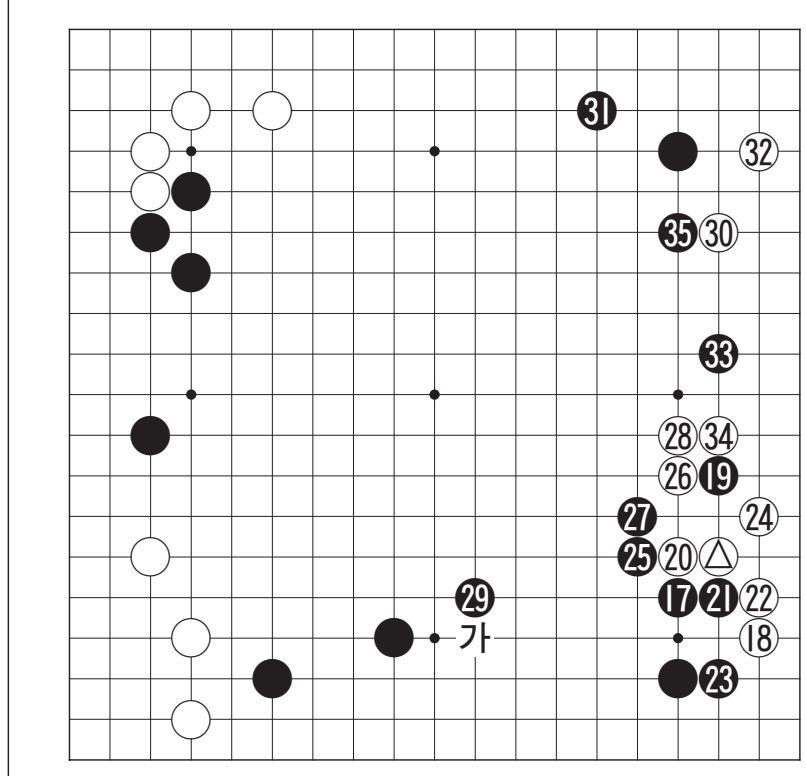
1956년 5월 자유당 정권의 부패에 맞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신익희 선생이 호남선 열차 안에서



급서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선을 열을 앞두고 호남지방 연설을 위해 기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사람들은 ‘비 내리는 호남선’을 추모곡처럼 눈물로 부르곤 했다.

‘비 내리는 호남선’으로 시작하는 가수 김수희의 ‘남행열차’는 개발 정책에 소외된 호남인들이 세상 시름에 술상을 두드리며 취기로 불려대던 노래이기도 하다.

호남인들과 애환을 같이했던 호남선은 지난 2004년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국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고 시속 300km에 이르는 KTX 열차도 굽이치는 호남선에 들어서면 계속질주를 멈춘다. 신형 객차 교체도 경부선에 비해 늦었던 호남선은 아직도 낙후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5회 KBC사자배 머리속에 그리는 많은 수 2보(17~35)

중고등부 결승전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백 △로 눈목자로 걸친 것은 급전을 피한 수. 한칸으로 걸치면 흑으로 부터 바로 협공 당해 바둑이 급박해진다. 점이 6집 반으로 커진 현대바둑에서는 되돌아가면 진 승부로 가는 것이 백의 자세다. 이런 경우 하변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흔히 흑 19로 협공하게 된다. 흑 23까지는 상응의 정식인데 다음 백 24가 선택의 기로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뛰어 나가고 흑이 8가 우변을 지킬 때 9로 3·삼을 쳐들어 가는 것도 프로의 바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식 중의 하나다. 김근홍군이나 강지수군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런 정식 변화가 수없이 머 리속에서 그려졌다가 사라지곤 한다. 상황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수많은 변화 중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한가지지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흑 29는 약간 욕심을 부린 수. ‘가’로 지키면 가장 확실하다. 흑 33을 선 수하고 35로 붙여 우변에서 기선을 잡기위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안조영 전자랜드배 4강 합류

안조영 9단과 안영길 6단이 제5회 전자랜드배 백호왕전 4강에 합류했다. 안조영은 8일 서울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 8강전에서 이성재 8단을 173수 만에 흑 불계승으로 눌렀고, 안영길도 이상훈 6단을 상대로 245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안조영과 안영길은 9일 준결승전을 치르며, 이창호 9단·조한승 9단의 승자와 우승컵을 겨루게 된다. 이성재·이상훈은 8강까지 주어지는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출전권에 만족해야 했다. 전자랜드배에 참여하는 만26~만50세의 프로그래머가 맞붙는 리그인 백호왕전은 상금은 우승 1천만원, 준우승 300만원이다. /오광혁기자 kroh@

리빙 센스

전자레인지 200% 활용하기 ①

- 식은 음식을 가열할 때만 전자레인지 사용...
▲빵가루 만들기
▲김 굽기
▲바삭바삭한 과자 만들기
▲냉동만두 찌기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9일(음 12월 2일 戊申)

- 36년생 금어 서둘러야 할 일이 생김. 48년생 자신의 명예보다는 부하의 앞날을 생각하라. 60년생 상사로 인해 고생이 생길 수 있다.
37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49년생 은근이 지진이나 새로운 것보다는 지난날을 점검하라.
38년생 불면이면 원인도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39년생 자신은 편하지만 이웃은 괴롭다.
40년생 금의야행 노력의 빛이 나지 않는다.
41년생 어려운 일은 이미 발생하였다.
42년생 마음은 편하지만 상황은 어려워 질수도 있다.
43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44년생 늦게까지 일을 하나 헛일이다.
45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46년생 현실을 떠나 마음껏 상상해보라.
47년생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소식은 온다.
48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
49년생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봐라.
50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51년생 부지런히 달려도 갈 길이 멀다.
52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3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54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55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6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57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58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59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60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61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62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63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64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65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66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67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68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69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70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71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72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73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74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75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76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77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78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79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80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81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82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83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84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85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86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87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88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89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90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91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92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93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94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95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96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97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98년생 내 사람을 만들려거든 술보다는 음식의 재미를 쓰라.
99년생 마음을 편하게 써라.
100년생 재물을 나누면 복은 들어온다.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은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굿모닝 잉글리쉬 <1072>

I'm glad you mentioned it.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What are you going to get David for his birthday?
B: I wanted to get a football but they're too expensive.
A: Do you realize that this football is on sale?
B: No, I'm glad you mentioned it.
A: 데이빗의 생일에 무엇을 사서 주려고 하세요?
B: 축구공을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요.
A: 이 축구공이 세일 중이라는 사실, 아세요?
B: 아니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주에 당신이 그 집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 Do you realize that you were supposed to clean the house last week?
* 이 모든 셔츠가 반값 할인이라는 사실, 아세요?
= Do you realize that all of these shirts are half off?

오하오우 니혼고 <1072>

韓國の成人の日はいつですか。
韓國의 성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A: 韓國の成人の日はいつですか。
B: たし4月の第3月曜日だったと思(おも)います。
A: 日本では、1月15日に各市町村で `成人式の式典(しきてん)が行われ、祝賀會となります。
女性(にょせい)はあでやかな着物(きもの)を着る人もいます `韓國ではどうですか。
B: そうですね。これといった式典(しきてん)はありませんが、各自でお祝(いわ)いをするようです。
A: 한국의 성인의 날은 언제입니까?
B: 분명히 5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A: 일본에서는 1월 15일에 각 시·읍·면에서 성인의식이 행해지고 축하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여성)은 우아한 키모노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때요?
B: 글썽요. 이렇다할 의식은 없지만, 각자 축하를 하는 것 같아요.
成人(せいじん): 성인

니하오 쑹구위 <49>

你跟谁一起过新年?
너 누구하고 설을 보낼 거니?
A: 姜老师, 你跟谁一起过新年?
姜老师, 너 누구하고 설 보낼 거예요?
B: 我跟朋友一起过新年.
我跟朋友(朋友)一起过新年.
A: 王老师呢?
王老师呢?
B: 我跟家人一起过新年.
我跟家人(家人)一起过新年.
A: 姜老师, 你跟谁一起过新年?
姜老师, 너 누구하고 설 보낼 거니?
B: 我跟朋友一起过新年.
我跟朋友(朋友)一起过新年.

한자 이야기 <689>

운수(運數)
들 운, 셈 수
운수(運數)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天運)과 기수(氣數)의 합성어이다. 운(運)은 '움직이다' '틀다'의 의미에서 우주 만물의 생성·변화·소멸·재생의 순환론적 자연철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 수(數)는 계수(係數)상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오장단(壽夭長短)을 의미하는 고대 상수론(象數論)적 수의 개념이다.
이런 상수론에 의거하여 '주역(周易)'의 기본원리가 전개된다. 즉 역리(易理)에 따라 '운수'는 우주를 형성하는 시간[宙]축과 공간[宇]축의 좌표 안에서 인간을 포함한 사물이 시작과 끝이 없는 생성·변화·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는 의미이다.
운수는 '기수(氣數)'나 '운기(運氣)'라는 말로도 통용되듯, 기학사상(氣學思想)은 근거로 체계화되고 전개되었다. 기(氣)란 오늘날의 에너지 불멸법칙처럼 우주공간에 차차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절대적 원동력으로, 정신과 물질을 조성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생명현상과 밀접한 운수관념은 기의 운동성을 받아들여 인간의 길흉판단을 내리는 기초가 되었다. 이런 운수사상의 기본은 북송(北宋)의 소용(邵雍, 1011~1077)이 주장한 것처럼 정제(停滯)보다는 변화(變化)에, 지속(持續)보다는 교체(交替)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운수는 대통(大通)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닐까?